

“그렇게 조심했는데...” 국내 첫 ‘돼지열병’ 발생 파주 ‘긴장’

2,3중 통제소 거쳐 방역차량·살처분 중장비들 줄지어 진입 양돈농가 밀집 파평면 “9년 전 구제역 악몽 재현 할까”우려

“그렇게 조심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 농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께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이후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들이 농가 주변으로 몰리면서

유일하게 농가로 이어진 주변의 좁은 농로와 뚝방길은 취재차량과 방역차량, 통제차량으로 뒤엉켜 혼잡을 빚었다.

방역당국은 농가 주변으로 2중·3중으로 통제소를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선 가운데 방역차량과 살처분·매몰을 위한 중장비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지어 농가 안으로 진입했다.

농장 근처 한 창고 주변에는 소

독약 봉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지난 봄 북한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접경지역에도 비상이 걸린 직후 이 농가에서도 수시로 소독약을 뿌린 흔적으로 보였다.

잠시 후 방역차량들이 뿌린 소독약이 농가에서 300여m 떨어진 마을까지 날아와 시름한 냄새를 풍겼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올해 5월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이 농장 주인과 인부들도 외부 왕래를 부쩍 줄이며 조심해 온 것으로 안다. 또 농장 주변에 주택이나 공장·창고, 차량통행도 거의 없어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연다산동의 농가에서는 2450두의 돼지를 사육중인 가운데 이 농장주는 인근 파평면(1000두)과 법원읍(500두)에서도 가족이 양돈농장을 운영중이어서 방역당국은 이들 3곳의 돼지 3950두 모두를 살처분·매몰할 예정이다.

연다산동 농가의 경우 인근 3km 반경에 돼지농가가 없고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20여 km 떨어진 파주지역 돼지농가 대부분이 밀려있는 파평면의 경우 긴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포클레인으로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는다.

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곳의 농장주 김모씨(61)는 “9년 전 구제역 파동으로 지식 같은 돼지들을 땅에 묻었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까 두렵다. 특히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어 한번 퍼지면 양돈농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양돈농가 양모씨(55)도 “가족들과도 접촉을 끊고 있다. 앞으로 1주일일 고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방역을 위해 140여 명

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가축이동 통제소 12곳과 ‘거점소독지’ 3곳(낙하리, 두지리, 농기센터)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이날 중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각종 가을축제와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당장 18일 개최 예정이던 수요포럼과 각종 직무교육도 취소하기로 했고 향후 계획된 행사와 축제도 개최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파주시에만 확진농가 포함, 돼지농가 95곳에서 11만 317

두를 사육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염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뉴스

DMZ 멧돼지 총살 지시 뚫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유입경로 오리무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클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나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경기도 파주에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발생 원인과 인접한 접경지에 위치했지만 창문이 없는 밀폐형 농가라는 점에서 발생 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돼지 2400두 정도를 키우는 번

식 농가로 창문이 없는 밀폐형 농장으로 아생멧돼지의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앞서 북한 ASF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6월초 이낙연 국무총리는 DMZ 이남으로 넘어오는 모든 멧돼지를 즉각 사살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당시 이 총리는 “DMZ 안 사격

돼지 농가도 없어 발생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정부 조사 결과 농장 관리인을 비롯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4명은 내달인으로 최근에 외국에 다녀온 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사료를 공급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도 전파 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김현수 장관은 “(발병 경로를)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원인이 될지 판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 열고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